

# 노사정 힘 하나로... 상용차산업 위기 돌파

도, 노사정협의회 개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미래차 중심 경쟁력 향상  
전문인력 육성 등 제시



18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지역 상용차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대응방안 마련과 노사정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전북 상용차산업 위기극복 노사정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도 상용차산업 위기극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행정기관, 기업, 노동조합,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도는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지역 상용차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대응방안 마련과 노사정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전북 상용차산업 위기극복 노사정협의회'를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신현승 군산부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최웅정 타타대우상용차 경영지원실장, 주인구 현대차 전주공작위원회 의장, 차상운 타타대우 상용차 노조지회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박사, 채준호 전북대 교수 등 지역 노사정 대표와 관계자 11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전북지역 상용차산업 위기와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체 구축과 사회적 협력이 필요해 추진

됐다. 토론에 앞서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박사는 "수소전기차로의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미래차 중심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대학교 채준호 교수는 "상용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

업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전북도는 상용차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공동대처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우범기 부지사는 "노사정 대

및 관계자들은 자동차 산업의 신기술 적용에 따른 상용차산업의 변화와 위기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 가자"고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앞으로 '상용차산업 위기극복 노사정협의회'는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제시하고, 상호간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미니픽 신장 이식 원숭이 국내 최장기간 동안 생존 중

안전성평가연구소, 이종장기이식 위해 면역거부 유발 '알파갈' 제거 · 사람 유전자 2개 삽입 미니픽 활용

안전성평가연구소(KIT)는 이종장기이식 유용성 및 안전성 검증 연구를 통해 미니픽 신장을 이식한 원숭이가 국내 최장기간으로 현재 6일째 생존 중 이라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건국대학교병원 외과 윤익진 교수팀과 율티팜(대표 한성준, 김현일)의 공동연구 결과로 이는 국내 최고 기록이며, 미국 499일 생존 기록에 도전 중이다.

공동연구를 진행한 건국대학교병원 외과 윤익진 교수팀은 형질전환 미니픽 장기를 이용한 이종이식의 기술개발과 효율적인 이종이식 프로토콜 수립 및 개발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율티팜은 최신 유전자 편집기술과 복제동물생산기술을 이용한 효율적인 형질전환미니픽 생산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국내 최초 미니픽의 GLP 인증을 획득해 이를 바탕으로 이종이식 시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와 면역거부 반응 극복 및 진단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종장기이식은 최적의 유전자형(Genotype)을 선별한 형질전환미니픽을 개발하고, 그 장기를 이식한 이후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면역거부반응, 조직학적 안전성 검증 등의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종장기이식을 위해 '알파갈(alpha-gal)'이라는 당(糖) 성분을 제거하고, 사람 유전자 2개를 삽입한 형질전환미니픽을 활용했다.

알파갈(alpha-gal)은 미니픽의 장

기 표면에 알파 1, 3-갈락토오스라는 당분자 2개로 이뤄져 있으며, 초급성면역거부 반응을 유발한다.

미니픽의 장기를 원숭이에 이식하게 되면 원숭이의 면역시스템이 낯선 이물질인 알파갈을 즉각적으로 알아채고 공격하게 된다.

이러한 면역거부반응은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강력하다.

이번 연구에서 원숭이의 신장 1개를 제거, 형질전환미니픽 신장 1개를 이식했고, 수술 후 11일째에 원숭이 본래의 나머지 신장 1개를 모두 제거해 현재는 이식된 미니픽의 신장으로만 생존하고 있다.

해당 연구 성과는 기존 이종이식의 면역거부반응을 제어한 형질전환미니픽 개발과 함께, 이종장기이식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의 고도화가 이뤄낸 결과로, 향후 사람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연구는 신부전과 같은 난치성 질환, 장기 기능 손실 등의 환우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의료기술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연구팀은 미니픽 신장을 이식한 원숭이 생존기간을 180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형질전환 미니픽의 유전자 종류에 따른 신장 이식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성평가연구소 동물모델연구그룹 황정호 박사는 "해당 연구를 통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이종이식 기술에 대한 유용성 및 안전성 평가의 정확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위험의 외주화 · 죽음의 외주화' 심각

5년새 산재 청문회 9개 증인기업서 발생  
중대재해 사망자 103명 중 하청이 85명  
22일 현대건설 · 쿠팡 등 대상으로 청문회

최근 5년간 9개 증인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103명 중 85명이 하청노동자로 '위험의 외주화 · 죽음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는 22일 현대건설 · 포스코건설 · GS건설 · 포스코 · LG디스플레이 · 현대중공업 · 쿠팡 · CJ대한통운 ·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9개 기업에 대한 산재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산재 관련 청문회 증인 9개 기업별 중대재해사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개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

해 사고는 총 128명으로 사망 103명, 부상 25명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103명 중 82.5%에 해당하는 85명이 하청 노동자였으며, 나머지 18명만이 원청 노동자였다.

부상의 경우, 전체 25명 모두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대재해의 위험이 원청에서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었다.

9개 증인기업별로 보면, 포스코건설이 사망 23명, 부상 14명 등 총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7명 모두 하청 노동자(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대재해 사고에 있어 하청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곳은 현대건설(90.0%, 20명 중 하청 18명), GS건설(89.3%, 28명 중 하청 25명), 포스코제철(77.8%, 18명 중 하청 14



명) 순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산재 청문회 증인 대상 9개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82.5%가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위험을 하청에 전가하다 보니 부실한 안전 관리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 · 죽음의 외주화 문제 근절과 위험에 노출된 하청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원청 경영책임자의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등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무분별 식욕억제제 오 · 남용 방지책 시급'



무분별한 식욕억제제 오 ·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물의존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미약류'로 관리되고 있는 항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다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톨 등)를 지난해에만 약 333만명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식물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욕억제제 처방건수는 969만3,765건으로 2018년 260만 514건에서 2020년 411만8,354건으로 무려 54.7%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처방환자 역시 217만7,924명에서 332만 2,151명으로 52.5% 증가했다.

처방환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환자가 일반의원급에서 3개월 미만 처방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10대 환자의 경우 2018년 2만677명에서 지난해에는 2만5,786명으로 24.7% 증가했다. 10세 이하의 환자는 2018년 5명에서 2019년 14명, 2020년 1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자연령 환자는 6살 아이로 나타났다. 90대 이상도 75명에 달해 전 연령대에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 WEF 회장, 문 대통령에 서한... "세계 경제 재건에 중요 역할"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 회장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18일 청와대가 밝혔다.

슈밥 회장은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한 '2021 다보스 아

젠다 한국 정상 특별연설'을 언급하며 "이번 참여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 재건을 시작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WEF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통한 일상의 회복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밝힌 바 있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적십자 회비 모금 동참해달라" 호소

대한민국의지사협의회, 코로나19 위기 속 소외계층 돕기 위해

대한민국의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7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모아 18일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동참을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 담화문은 대한적십자사가 정보보조자로서 수행하던 인도주의 활동 지속에 전국민 회비 모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이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대한적십자사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인천·상주·영주 4개 적십자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또한, 15개 혈액원을 통해 치료에 필요한 혈액 수급관리에 힘쓰는 등 공공의료체계 일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소외계층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웃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전국민 회비모금이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도지사들의 동참 호소 차원에서 공동 담화문을 채택했다.

대한민국의지사협의회는 담화문을 통해 "적십자 정신은 모든 국민이 존중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드는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적십자 회비모금 등 적십자 활동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적십자 회비 2차 집중모금은 지난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75일간 추진되고 있다. 이외의 기간에도 회비 모금은 연중 계속된다. /유호상 기자



# 민간조사 전문기업

#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 010-5636-7755

907호